

<특별기고>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와 우리 음악교육

김 영 연* · 이 영 애**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2010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어 세계 193개국에서 온 문화예술교육관련자 이천 여명이 참석하였다. 본고는 대회의 전 일정을 참가한 연구자들이 대회에서 얻어진 여러 가지 정보와 경험을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원들과 나누고자 작성되었고 전체적인 내용은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배경, 두 번에 걸친 각 대회의 구성과 이슈, 2010년 대회의 일정과 대회의 결산안인 서울 아젠다로 구분된다. 연구자들은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발표된 세계 각국의 예술교육의 정책과 실천 사례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음악교육 현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음악교육 연구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다.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연혁을 살펴보고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대회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과 성격을 규명하는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가 문화예술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더 나아가 서울 아젠다에 부응하는 우리의 문화예술교육 실천과 학문적 발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세계의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상호 격려함에 보고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주제어 : 문화예술교육, 유네스코, 음악교육, 서울 아젠다

차 례

- I. 들어가며
- II.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배경
- III.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전체적 구성 및 이슈
- IV.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목표
- V. 나가며: 보다 나은 예술교육을 위한 반성

* 신라대학교 교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I. 들어가며

반세기만에 이루어낸 눈부신 경제성장의 주인공 대한민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으로 향한 발돋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이목을 주목하게 만든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발전의 역사는 언제나 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 등수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곤 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지식위주의 사회로 가속화되어 갔고, 그에 비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하는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던 시대적 문제이기도 하다.

급속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분열, 폭력, 혼란 및 갈등 등의 사회문제는 그 연령층이 점차 낮아져 저학년의 학교 교육에서 조차 왕따 및 폭력 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의 문제는 더욱 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갈망과 필요성을 대두시키게 되었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대로 소외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창의성 교육은 각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가치로 부상되고 있는데, 창의성 교육과 예술교육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인지된 사실이기도 하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지식 위주의 사회에서 창의성을 위한 교육으로, 사회의 혼란과 다양성을 통합하는 교육을 위한 핵심 가치로서, 예술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문화예술교육간의 협력이 절실함이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다.

금번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역사적으로 두 번째 맞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열렸다. 60여년의 유네스코 역사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해도, 이제라도 세계가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자는 국제적 노력의 결실로서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4년 전 첫 발돋움을

하였고,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올해 우리나라에서 제2회 세계대회로 재결집했음에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 규모의 행사는 세계의 문화예술교육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유네스코의 만장일치를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게 된 점은 한국의 문화예술교육분야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위상과 역할기대를 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전체 프로그램을 참가한 후 본 대회의 전체적인 개요 및 구성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결과들을 본고에 정리해 봄으로써 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예술교육분야 특히 음악교육의 전문가들과 대회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본 대회를 통해 보고된 세계 각국의 예술교육의 정책과 실천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음악교육 현장을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함으로써 향후 추진해야 할 후속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즉 본 대회를 여타 문화행사로 끝내지 않고 한국 및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 우리 모두가 예술교육발전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자 하는 데에 본고의 목적을 두었다.

II.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배경

1. 제1회 리스본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유네스코와 포르투갈 정부의 공동 주최로 “21세기를 위한 창의력 구축(Building Creative Capacities for the 21st Century)”이라는 주제로 2006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의 베렘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제1차대회에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의 한국 대표단을 포함 총 97개국 1200여명이 참석하였고, 대회는 5회의 전체회의,

2회의 라운드테이블, 그리고 4회의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이 때 대회를 통하여 정책결정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대회의 결과로서 예술교육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는 『유네스코 예술교육 로드맵』이 도출되었고 이는 제2차 대회가 열리기까지 제1차대회 참석 각국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의 틀로 활용되어왔다.

무엇보다도 제1차 대회에서 나온 예술교육에 관한 로드맵(Road Map for Arts Education)은 첫 대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술교육을 위한 로드맵은 제1회 대회 후 세계 전 회원국에 전달되어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로드맵은 예술교육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 회원국들 사이에 공통된 이해를 격려하고,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일치를 발달시키는데 활용되도록 계획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1세기의 창의성 및 사회적 인식에 대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예술교육의 역할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예술교육을 교육 환경에서 고취시키고 소개하기위한 전략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로드맵의 대략적 구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로드맵 구성

범주	구체적 내용
예술교육의 목적	a. 교육과 사회적 참여에 관한 인간의 권리를 지지하기 b. 개인의 능력을 발달시키기 c.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d.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을 고취시키기
예술교육에 관련된 개념	a. 관련 예술 분야 b. 예술교육에의 접근 c. 예술교육의 차원
효과적인 예술교육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	a. 교사와 예술가를 위한 교육 b. 파트너십: 행정부 혹은 정부관계 수준, 학교 수준, 교사 수준
예술교육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지식의 공유	
제언	a. 교육자, 학부모, 예술가, 교육기관의 기관장을 위한 제언 b. 정부 관계자 및 정책 수립자들을 위한 제언 c. 유네스코와 비정부기구(NGO)를 위한 제언

2. 제2회 서울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2007년 10월 제34차 유네스코 총회를 통해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국으로 결정된 한국의 서울에서는 2006년 제1차 리스본 세계 대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아시아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예술교육의 문화적 실천’을 위한 지식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학문적·실천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국제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성 발전에 기여함을 대회의 초점으로 삼았다. 제1차 세계대회가 우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글로벌 포럼을 조직하고 국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첫 번째 기획 프로젝트였다면, 금번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는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사회문화적 차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결속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강조함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 서울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예술교육 로드맵에 대한 각국의 실천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평가 발표하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전체대회가 계획되었음이 대회 전 일정으로 통하여 확인되었다. 특히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대회 기간 동안 강의실에서는 연구 중심의 강연이, 대회장 홀에서는 어린이의 예술 활동이 동시 진행되었다는 점과 마지막 날에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관련 학회들의 연구발표가 각각 개최된 점도 특징적이었다.

Ⅲ.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전체적 구성 및 이슈

리스본에서 열렸던 제1회 대회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Arts for Society, Education for Creativity)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유네스코의 목표를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는 2010년 5

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에 걸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금번에는 제1차 세계대회보다 96개국이 증가한 193개의 회원국에서 국내 900명, 국외 1100명 총 이천여 명의 예술분야 학자, 정부관계자, 교육자 및 예술가들이 참가하였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개, 폐회식 행사, 20여 개국 고위급 인사들로 이루어진 고위급 원탁회의, 3회에 걸친 전체회의, 3개의 특별회의, 예술교육의 국제적인 이슈에 따라 총 9개 범주 25개 분과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내행사로는 창의성, 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육 포럼 및 창의교육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학술대회, 인문학과 과학, 예술이 만나는 장 등이 있었다. 명실 공히 본 대회는 제1차 대회의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가치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대회 참가자들은 모든 회원국들이 안고 있는 예술교육에 관한 어려움이 그 정도와 성격의 차이가 있을 뿐 대회 참가국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적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대회 참가자를 통하여 발견된 흥미로운 점은, 시급한 교육현안의 핵심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는 현실, 이에 대한 과소평가와 잘못된 인식은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뛰어넘어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대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마찬가지로라는 점이 또한 확인되었다.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담아내기라도 하듯, 대회 시작을 알리는 첫째 날 개회식 축하공연은 음악, 무용, 미술, 영상기술을 통합하여 공연예술의 극치를 선사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분단의 역사를 겪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갈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동, 서 문화의 통합 및 화해와 평화의 새 역사를 예술문화교육을 통해 써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유감없이 표출해 내기도 하였다. 또한 세계적 학자와 예술가들의 창조적 사고방식을 조명한 ‘생각의 탄생’의 저자 로버트, 미셸 루트 번스타인 부부가 “예술이 중심이다”라는 기조강연을 하였다. 그들의 기조강연에서는 과거 노벨상 수상자들이 과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이전 이미 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소개하였는데 과학 및 지식중심의 현대 사회에서 예술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

과 이러한 예술교육의 강조는 곧 과학 및 의학 부문에서의 발전도 예고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본 세계대회는 두 가지 대조적인 패턴으로 구성되었는데, 공식 연설과 자유토론, 개인 연구발표와 참가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대화의 형식에서의 대조적인 측면과 공히 인식과 현실의 차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차이, 전통교육과 세계화교육 간의 차이, 예술과 과학 및 기술과의 차이의 내용면에서의 대조적인 면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예술을 통한 통합과 평화를 강조하는 만큼이나,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이가 이미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다음은 여러분의 대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흘 동안의 전체 대회 일정을 일자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010년 5월 25일 첫째 날은 “실천”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예술교육 로드맵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다양한 순서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조연설 및 로드맵 이해사항에 대한 검토와 현장조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로드맵 실행 전략 수립에 관한 패널 토론과 지역적 맥락에 따른 지역별 지역회의, 국가 미래전략으로서의 예술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내, 정부 간, 국가 간 협력에 관한 고위급 원탁회의가 진행된 후 7개의 주제별 분과회의가 진행되었다. 분과회의의 각 주제들로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예술교육 변화, 로드맵의 실천 단위별 활용증대 방안, 정부부처 간, 정부부처 내 파트너십,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파트너십, 교사와 예술가 사이의 파트너십, 예술교육 실천가의 핵심역량 개발, 교사 및 예술가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 등이 있었다.

5월 26일 둘째 날의 주제는 ‘설득과 지지’로서 사회문화적 가치로의 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회의들을 통해 토론되었다. 전체회의 중 첫 번째 기조발제의 주제는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의 증진 이었고, 두 번째 기조발제는 전통과 현재 사이의 긴장과 지리·문화적 차이의 극복에 관한 것이었으며, 예술교육의 사회문화적 가치옹호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패널토론을 통해 심층적 토론이 이어졌다. 분과 회의에서는 다변화된 사회의 예술교육, 예술교육을 통한 치유와 회복 및 시민

사회와 경제주체들의 예술교육 참여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들이 논의되었고 분야별 예술교육 구제 NGO와 재단주도의 전문가 및 실천가들 간의 특별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에 관한 국제 포럼이 진행되었다.

5월 27일 셋째 날은 “역량 개발” 가치 옹호를 위한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예술교육의 영향과 예술교육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예술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기초발제들로 시작되었으며, 예술교육 연구에서 현장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패널토론을 통해서 논의되었다. 다양한 분과회의에서도 예술교육 옹호를 위한 증거들에 대해 지표개발이나 증거에 기반을 둔 예술교육 정책의 수립을 강조하며 자칫 약할 수 있는 예술교육분야에 ‘연구자로서의 교사’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예술교육 정보의 소통과 공유라는 측면에서도 연구를 위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이 분과회의에서 논의되었고, 이론과 실천에 관한 다양한 새로운 방향들이 모색되었다. 또한 2010년 “세계 문화 간 화해의 해”를 맞이하여 문화 간의 화해를 위한 예술교육의 근본적인 옹호와 지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5월 28일 마지막 날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자축하고 국내의 각 예술교육 학회 즉 한국음악교육학회, 한국미술교육학회, 한국국악교육학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창의·인성 교육 학술대회’가 국내 문화예술교육 관련자를 대상으로 열렸는데 한국음악교육학회에서는 ‘다문화 음악교육과 음악적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나흘 동안의 세계대회를 끝마치기에 앞서 공식 보고자에 의한 대회 최종 보고서가 발표됨과 동시에 ‘서울 아젠다’가 구축되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예술교육 발전목표가 채택 발표되면서 2010 제2차 유네스코 서울 세계 문화예술교육 대회가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렇게 세계적인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됨을 계기로 본 대회의 구성 내용은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재정리된다. 첫째, 예술을 통한 다문화간의 통합 둘째, 전통과 현대를 잇는 시대적 관점에서의 사회 간의 통합, 셋째,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사들 간의

휴먼네트워킹의 통합, 즉 현장 연구자로서의 교사, 교육연구 개발자로서의 예술가. 창의성 개발에 역점을 둔 예술교육의 강화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본 대회의 가장 큰 결과물인 ‘서울 아젠다’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IV.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목표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첫 번째 리스본에서의 세계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결과물이 ‘예술교육을 위한 로드맵’이 작성된 것이라면, 본 대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서울 아젠다’로 지칭된다. 리스본 예술교육 로드맵이 예술교육의 핵심적 역할에 대해 회원국들 사이에 공통된 이해를 격려하고,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일치를 구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것에 비하여, ‘서울 아젠다’는 세계 각국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예술 실천을 촉구하고 예술교육 정책의 방향을 선도하며 그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 지침을 전 세계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분히 종합적이면서도 명확한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 목표’의 도출로 인하여 대회 말미에 세계 예술교육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얻었으며, ‘서울 아젠다’의 채택으로 인하여 서울 대회의 역사성이 부여되었고 향후 세계 예술교육 발전에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리라고 예견되었다.

‘서울 아젠다’의 향후 활용 방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 목표’를 통해 예술교육의 정당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서울 아젠다’를 기반하여 향후 문화예술 교육 정책 및 사업을 수립·집행·평가하며, ‘서울 아젠다’의 실천으로 예술 교육을 통한 교육개혁의 모델을 제시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3개의 상위목표 범주 아래 12개의 전략과 46개 실행방안으로 구성된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

목표	전략
1. 심도 있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지속적 요소로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보 한다	a. 어린이와 청소년의 조화로운 창의적 인지적 감성적 미적 교육 및 사회적 발달의 근간으로서 예술교육을 주창한다. b.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에 관한, 예술교육을 통한 평생 교육 및 세대 간 교육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c. 예술교육을 통해 정규·비정규 교육시스템 및 구조의 재구축을 촉진한다. d. 예술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예술교육정책을 활성화하며 예술교육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2. 예술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은 그 착상과 전달 면에서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a. 학교 및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예술가와 교육가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b. 교육자, 예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술교육훈련이 이뤄지도록 보장한다. c.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예술교육을 위한 파트너십을 개발한다. d. 예술교육에 있어서 이론, 연구, 실천 간에 논의 및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a.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교육을 적용한다. b. 사회적·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발전시킨다. c. 사회적 책무, 사회적 통합, 문화 다양성 및 문화상호간 대화를 촉진함에 있어 예술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제고한다. d. 세계평화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술교육 역량을 촉진한다.

http://www.artsedu2010.kr/htm/kor/artsedu/352_document_view.jsp?pSearchWord=&pBbsCode=389&pCurrentPage=6>

V. 나가며: 보다 나은 예술교육을 위한 반성

2010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의 걸친 제2회 세계문화예술 서울 대회의 전체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대회 마지막 날 오전에 국외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등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국내 참가자들은 예술교육 분야별 또는 통합모임이 있었다. 음악, 국악, 무용, 미술, 영화, 과학과 예술 등 10여개 학회별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음악분야는 한국음악교육학회가 주관 학회였다. 여기에서는 ‘다문화 음악교육과 음악적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음악 교수학습법 및 창의성에 관하여 5명의 발표(민경훈, 고선미, 이영미, 조흥기, 최정현)와 5명의 토론(장근주, 김선미, 장은언, 양종모, 박지현)이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원을 포함 약 120 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세계 193국 국외 1100 여명 국내 900 여명의 전체참가자 이천여 명이라는 대회 규모를 볼 때 한국음악교육학회 회원의 참가율이 저조하였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특히 본 대회를 통해서 예술교육이 사회통합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동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악교육 내에서도 좀 더 역동적인 통합의 움직임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본 세계대회의 전 일정을 지켜본 참가자에게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예술영역 내에서의 통합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 및 교육자들로부터 언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학회별, 연구 분야별 협력이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단면을 직시해서일 것이다.

그래도 제2회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참가하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술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라는 우리나라 역사적 격동기 한 정치인의 지적처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연합과 협력의 움직임의 현실적인 중심에서 세계적인 대회를 개최한 주최

국으로서 각 예술분야와의 공동연구 및 공동 학회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의 움직임과 이에 대한 건강한 논의와 대책마련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음악교육학회와 국악교육학회 뿐 아니라 음악교육학회 안에서도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아시아 최초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의 서울 아젠다가 우리나라에서부터 모범적으로 실현되어 4년 후 2014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이 타 문화권에 성공 사례로 소개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음악을 위시한 문화예술교육은 우리나라 영유아와 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로 치닫는 무리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일탈하여 그들의 정신과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울 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강국을 향한 발전선상에서 이제는 문화 강국을 향하여 이 같은 대규모의 세계문화예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였다. 대회의 결과를 세계인이 공유하기도 하여야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몫도 간과할 수 없다. 학문과 교육현장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각자의 역할을 유감없이 담당하고 발휘해야할 시점이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움직이고 노력하면서 본 대회가 의도하는 실천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많은 참가자들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양한 제안들을 했으니,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음악교육연구가와 현장실천가들의 노력에서 잊혀지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함께 그리고 각자 움직여야 할 때이다.

참 고 문 헌

UNESCO. 예술교육 로드맵.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프로그램.

UNESCO (2010). 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 Education. Proceedings.

ABSTRACT

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2010 and Korean music education

Kim, Young-Youn & Youngae Lee

The 2nd UNESCO International Cultural Education Conference was held in Seoul, Korea, from May 25 through 28, 2010. About 2,000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n fact 193 countries, attended this meeting.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share the information and experiences gained from the this world conference with the people, especially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for music education, those who could not attend this meeting. This report consists of four parts: The background of this International cultural education conference, the structure and the main issues of the previous and current conferences in Lisbon, 2006 and Seoul, 2010, respectively, the detailed schedule of the 2010 Seoul conference and finally the Seoul Agenda which is the final document of the Seoul conference. The cultural edu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reported by other countries may be helpful for our creative thoughts toward music educational academic and practical teaching development. Moreover it could be possible for us to attain the music educational research tips based on the Seoul agenda which is applicable to our real teaching settings of music in Korea as well as in abroad.

Key Words : UNESCO, arts education, Seoul agenda

투고일: 9월 27일, 심사(수정): 11월 1일, 게재확정일: 12월 1일